‘황국’의 ‘고사’로 증명하는 세계

-모토오리 노리나가『고사기전』의 주석과 방법에 대해-

裴 寬 紋*
(e-mail: ansll@hotmail.com)

目 次

1. 머리말
2. ‘어국(御国)’에서 ‘황국(皇国)’으로
3. ‘고사(古事)’를 통해 파악하는 세계
4. ‘황국’의 ‘고사’를 찾아서
5. 맺음말

1. 머리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는『고사기(古事記)』상·중·하 3권을 가지고『고사기전(古事記伝)』총44권을 저술했다. 이 방대한 주석서는 1764년으로 추정되는 그 기고부터 1798년의 성립까지 약 35년간의 세월이 걸린, 노리나가 반생의 작업이었다. 간행이 시작된 것은 1790년대부터, 전권의 출판은 노리나가 사후인 1821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중 1771년에 완성된『고사기전』제1권은『고사기』본문의 주석에 앞서 노리나가가 스스로의 방법론을 밝힌 서론이자 총론에 해당된다. 그 구성을 보면「고서적에 대한 총론(古記典等総論)」,「서기(書紀)[1]에 대해」,「구사기(旧事紀)라는 책에 대해」,「고사기의 제목에 대해」,「제본(諸本) 및 주석에 대해」,「문체(文体)에 대해」,「가나(仮字)에 대해」,「훈법(訓法)에 대해」,「나오비노미타마(直毘霊)」의 9항목으로 되어있다. 이어서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전문학／국학사상

1)『日本書紀』를 가리킨다. 단, 이는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日本書紀』의 서명에 관해 ‘日本’을 뺀 ‘書紀’가 올바르다고 보는 노리나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항목에서 노리나가가 논하는 내용이며, 따라서『고사기전』을 비롯한 노리나가의 저서에『日本書紀』는 항상 ‘書紀’라고만 표기된다.

제2권은 『고사기』 서문의 주해, 그리고 황통의 계보(「大御代之継継御世御世之御子等」)로서 『고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과 그 자손인 천황가의 인물 관계를 도표로 정리해 놓았다. 이후 제3권부터가 『고사기』 본문에 대한 주해 부분이다.

애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의 나열만으로 이루어진 『고사기』를 제대로 읽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더욱이 『고사기』는 동시대의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같이 정식 한문으로 쓰인 문장도 아니었다. 그 같은 『고사기』의 한자 하나하나에 대해 '올바른' 읽기를 제시하고자 한 『고사기전』은 본래 일본에 있었던 고유의 일본어로 『고사기』를 읽은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고, 요컨대 결국은 노리나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고어(古言·古語)'를 찾아내어 새롭게 정한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노리나가가 『고사기』 읽기를 가능하게 만든 것만은 틀림없다.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고사기』 연구자들은 여전히 노리나가의 『고사기전』과 『정정고훈고사기(訂正古訓古事記)』에 우선적으로 의지할 정도다. 다만 종래의 일본문학 연구자들이 『고사기』의 해독을 위해 『고사기전』의 필요한 부분을 줄곧 참고해 왔다는 사실과 『고사기전』이라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밝히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본고의 문제인식은 『고사기전』을 『고사기』와는 별개의, 또 다른 하나의 텍스트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고사기전』은 분명히 『고사기』 주석서이지만, 『고사기』를 위한 참고서로만 보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사기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사기』 주석 작업에 경도되었던 노리나가의 사상의 일단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황국(皇国)'[3]이라는 용어에 주목하여 『고사기전』의 본질에 접근할 것이다.

2. '어국(御国)'에서 '황국(皇国)'으로

먼저 살펴볼 내용은 『고사기전』 제1권 「고서적에 대한 총론」이다. 이 항목에

2) 神野志隆光(2005) 「『古事記伝』の『古事記』」 을 비롯하여, 神野志隆光(2007)『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의 특히 제10장 「「古語」世界の創出――『古事記伝』」 등을 참조.

3) 노리나가의 훈에 따르자면 '皇国'은 '미쿠니(ミクニ)'라고 해야 마땅하나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황국'으로 통일했다. 후술하는 '御国'과 '皇国' 모두 '미쿠니'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양자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노리나가의 '황국'이 근대 이후에 익숙하게 쓰이는 '황국'이라는 용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대립되는 '漢国'은 크게 중국으로 보아도 무방하나 '韓国'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더 정확히는 타자로서 인식하는 관념상의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라쿠니(カラクニ)'로 두었다.

www.kci.go.kr

서는 성립 이래 공식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일본서기』와는 대조적으로, 『고사기』가 역사 속에 묻혀있었던 사정을 논하고 있다. 그것이 곧 『고사기전』의 집필동기였다. 여기에 유명한 '고토(言)'='고토(事)'='고토(意)'의 삼위일체론에 기초한 『고사기전』의 방법론이 나온다.[4] 노리나가에 따르면 『고사기』는 한문보다 일본의 고유한 '고어'를 의식하여 편찬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고사기』의 기술은 『일본서기』보다 더 '고대의 진실(古の実·古の正実)'을 사실에 가깝게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노리나가에 의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가치의 전도다.

물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당시 실제 쓰이던 '고어'가 『고사기』라는 문헌에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노리나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각적이었다. 「훈법에 대해」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황국의 고대에는 세상의 온갖 것에 그다지 세세하게 나누어 이름을 붙이지 않아서 많지 않은 말로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가라쿠니 등은 만사를 번잡하게 따지는 풍속으로 어느 것이나 과할 정도로 세세한 명칭이 있기 때문에 후대에는 그저 대강 말로 전해왔던 것도 문자로 옮길 때 그러한 명칭에 대입해서 쓰는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 경우 본래의 옛말은 없더라도 모두 글자의 음(字音)으로는 읽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 형상에 따라 새롭게 훈(訓)을 만든 것도 있다. 그것은 진정한 고어와는 당연히 다른 종류의 것이기는 하나, 나라 시대까지 성립된 것은 역시 고어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다.[5]

『고사기전』의 훈이 그대로 『고사기』에 남아있는 '진정한 고어'라고만은 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훈을 '고어'로 정했다는 사정을 위와 같이 명확히 전제로 하고 있다.

'말'에 대응되는 개념은 '글'이다. 노리나가의 언설에서 '고어'의 대립 항은 언제나 '가라부미(漢文)'다. '황국'과 대비되는 '가라쿠니(漢国)' 비판의 근본은 이에 기인한다. 흔히 노리나가의 내셔널리즘을 논하는 이들이 절대 빠뜨리지 않

4) 이에 관해서는 노리나가의 문자론을 중심으로 졸고(2011.8)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5) 「皇国の上代は、万の物にも事にも、あまり細に分て名称をば着ず、なべての言語すくなくて、こと足れりしを、漢国などは、なべて言痛き風俗にて、何事にも、あまりなるまで細に名称のあるなれば、此間にはたゞ大かたに言伝へ来つることも、文字に移すとき、其々の名称のあるに当て書くことどもも有べし、さる類は、本よりの古言は無けれども、すべて字音ながらは読ざるならひなりしかば、其状に従ひて、新に訓を造りしも有べし、其は真の古言とは、おのづから同じからぬ物なれども、那良までに出来つるは、なほ古言と定めて、えさらぬ時は用ふべし、」(9권, p.35). 이하 『고사기전』을 비롯한 노리나가 저작의 인용은 모두 大野晋·大久保正 校訂(1968-93)『本居宣長全集』筑摩書房에서 번역한 것이며, 권수와 쪽수만을 약기함. 【 】는 세주(割注)를 뜻하고, 원문의 루비는 난해한 경우에 한해 병기함.

www.kci.go.kr

는 ‘가라고코로(漢意)’ 배척이라는 사상은 현실의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이나 적대의식 이전에 먼저 글쓰기 차원의 문제였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황국’의 학문이란 고서적 속에서 ‘한문의 취향(からぶみごゝろ)’을 배제함으로써 ‘고어’를 통해 ‘고대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일을 뜻한다.

‘황국’(‘황국’으로 대변되는 ‘미쿠니’) 대(対) ‘가라쿠니’의 언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1권말에 있는 「나오비노미타마」다. 이 항목은 애초에 유학자들과의 사상사적 논쟁을 위해 독립적으로 간행되었던 것을 『고사기전』의 서론으로 재이용한 것으로서, 논쟁서의 성격상 신랄한 ‘가라쿠니’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서는 일단 그 내용 분석은 뒤로 하고, 본고가 주목하는 ‘황국’이라는 용어 사용의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나오비노미타마」의 성립을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나오비노미타마」는 『고사기전』 제1권에 실리기까지 여러 번의 추고를 거쳐 성립한 사실이 선행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초고의 변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6] 다음은 현재 『고사기전』에 수록되어 있는 「나오비노미타마」를 편의상 제4고로 보고, 남아있는 도중의 원고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제1고 『古事記雑考』「道テフ物ノ論」
大御国ハ、カケマシクモカシコキ神祖天照大御神ノ御生坐ル大御国ニシテ、(14권, p.97)
제2고 『道云事之論』
大御国者、闕麻久母畏伎神祖天照大御神之御生所坐大御国爾斯弖、(14권, p.107)
제3고 『直霊』
大御国は。かけまくも畏き神祖天照大御神の御あれませる大御国にして。(14권, p.119)
제4고 『古事記伝』「直毘霊」
皇大御国は、掛まくも可畏き神御祖天照大御神の、御生坐る大御国にして、(9권, p.49)

인용은 각 원고의 첫머리만을 든 것인데, 단 제1고의 경우 첫머리가 아니라 다른 원고와의 비교를 위해 대응되는 구절을 제시했다. 노리나가가 사용하는 개념이나 서술 용어 등은 이와 같이 추고에 추고를 거듭한 결과 점점 의식화되고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차 강조하건대 노리나가의 어떠한 사상이 마치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의식구조를 운운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 더욱이 「나오비노미타마」에는 「이 편은 미치(道)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듯이, 저술의 목적을 매우 분명히 하고 있다. 논쟁을 의식한 만큼 보다 명료한 형태로 전달하려고 노력한 측면도

6) 「나오비노미타마」의 자세한 성립 사정에 대해서는 앞의 책 『本居宣長全集』 14권의 해제(大久保正 집필) 참조.

www.kci.go.kr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위의 인용에서 제2고에 해당하는 『미치에 대한 논(道云事之論)』은 사본의 형태로 유포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널리 읽혀졌다. 노리나가와의 사상 논쟁으로 유명한 당대의 지식인들, 예를 들어 이치카와 가쿠메이(市川鶴鳴·匡·匡麿: 1740-1795), 후지와라 데이칸(藤原貞幹·藤貞幹: 1732-1797),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1734-1809) 같은 이들이 접했던 것도, 그로 인해 노리나가가 비판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모두 이 책이었다.

인용문으로 돌아가 보면, 위의 첫머리 부분은 내용상의 변화는 거의 없어서 그만큼 문체나 표기의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마지막 정본 「나오비노미타마(直毘霊)」와 제3고 『나오비노미타마(直霊)』 사이의 유일하게 다른 곳을 금방 알 수 있다. 즉 '오호미쿠니(大御国)'에서 '스메라오호미쿠니(皇大御国)'로의 표기의 변환이다. 물론 첫머리뿐 아니라 제3고 단계에서 '어국(御国)'으로 쓰던 '미쿠니'는 제4고에서는 거의 다 '황국(皇国)'의 '미쿠니'로 바뀌었다. 노리나가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원고를 수정하여 1790년 초에 『고사기전』을 간행할 때 제1권 말미에 「나오비노미타마」를 실은 것이다.

1771년 성립으로 추정되는 제3고의 시점에서 아직 '황국'이라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780년, 노리나가의 고도론(古道論)을 비판하는 유학자 이치카와 가쿠메이의 『마가노히레(末賀乃比礼)』에 대해 노리나가가 그것을 재비판한 『구즈바나(くず花)』가 되면 이미 '황국'을 전면에 내세워서 논쟁을 하고 있다. 또 후지와라 테이칸의 1781년의 저서 『쇼코하쓰(衝口発)』에 대한 노리나가의 비판서 『겐쿄진(鉗狂人)』이 1785년에 나오는데, 여기에 우에다 아키나리가 가담하게 된다. 그러자 노리나가는 아키나리와 서간으로 주고받았던 논쟁의 내용을 1787년에 『가카이쇼(呵刈葭)』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겐쿄진』에서도 『가카이쇼』에서도 노리나가는 '황국'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리나가가 '황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1771년 이후의 일이었고, 1780년대에는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즈음은 한마디로 노리나가의 논쟁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동시에 『고사기전』의 주석과 정서(清書) 작업이 착착 진행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을 표현하는 용어가 '어국'에서 '황국'으로 거의 통일되었다고 하겠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노리나가가 황국주의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항상 '황국'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고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실제 조사해 보면 『고사기전』을 집필해가는 과정에서 '어국'에서 '황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국'이나 '황국'이나 사실 노리나가의 훈으로는 똑같이 '미쿠니'이기는 하지만, '황(皇)'이라는 글자를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심장하다.[7] 『고사기전』에서는 예를 들면 『위지왜국전(魏志倭国伝)』의 서명을 『위지황국전(魏志皇国伝)』이라 바꾸고, 『전왕묘릉기(前王廟陵記)』를 『전황

묘릉기(前皇廟陵記)』라고 표기를 바꿔 인용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것들은 일례에 불과하다. '황'자가 붙는 '스메카미(皇神)', '스메미마노미코토(皇孫命)', '오호미야(皇宮)', '미야코(皇京)' 등도 원래 『고사기』에는 없지만 『고사기전』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한자는 문자가 없었던 고대 일본에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글자에 절대 구애받지 말고 문자 너머에 있었을 본래의 고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노리나가의 방법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역으로 노리나가가 문자를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셈이다. 이제 '황국'이 『고사기전』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임을 확인한 이상, '황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사기전』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고사기전』 텍스트 속에서 '황국'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고사(古事)'를 통해 파악하는 세계

『고사기전』 중에 쓰인 '황국'이란 말은 약 180례에 달한다(부록 『三大考』 중의 24례를 제외한 횟수). 엄밀히 말하면 '어국'이라 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어국'은 총78례가 있다. 단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의 어국(天照大御神の御国)"(9권, p.50), "천신들이 계시는 어국(天神たちの坐ます御国)"(9권, p.121), "황손이 다스리는 어국(御孫命のしろしめす御国)"(9권, p.122)과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아있다. "천황이 계시는 어국(天皇命の静坐御国)"(10권, p.22)이라고 할 때 '어국' 대신 '황국'을 쓰면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황국'이라고 할 때는 "천황이 계시는 어국"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황국'과 비슷한 '황조(皇朝)'라는 말도 42례 있는데, 훈은 '미카도(ミカド)', '스메라미카도(スメラミカド)', '미쿠니(ミクニ)'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다. 그 밖에도 '와가쿠니(ワガクニ)'로 읽는 '아국(我国)' 4례, '오국(吾国)' 2례, '오조(吾朝)' 1례 등이 수적으로 미미하나마 남아있다. '고노쿠니(此国)' 혹은 '고코(此間)'라고 칭할 때도 대개의 경우 일본을 가리킨다. 자국을 표상하는 이러한 용어들도 염두에 두면서 '황국' 관련 용례들이 어떠한 문맥에 쓰이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7) '황국(皇国)'은 노리나가가 독창적으로 새로 만든 조어(造語)는 아니다. 노리나가 이전의 국학자들의 사용을 비롯해서, 18세기말의 근세일본에 이 용어의 보급과 함께 이른바 '황국'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野口武彦(1986), 渡辺浩(199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졸고(2011.2)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생략한다.

『고사기전』 안에서 ‘황국’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는 ‘황국어(皇国言·語)’, ‘황국의 고어(皇国の古言·語)’와 같은 형태다. 『고사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가 “본래부터의 황국어(本·基よりの皇国言)”인지 아닌지를 고찰하거나, “황국어가 아니고(皇国の語に非ず)”, “황국어의 모습이 아니고(皇国言のふりにあらず)”, “황국의 옛 이름과 다르다(皇国の古称にたがへり)”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황국어’로 적합한 훈을 정하거나 한다. 전체 ‘황국’ 용례의 약 40%가 이와 같은 ‘황국어’의 형태, 꼭 ‘황국어’가 아니더라도 내용상 ‘황국’의 어법이나 문법 등을 문제로 삼는 것들이다. 그리고 약 30%는 ‘황국’의 옛것(古の物)이나 옛일(古の事)에 대한 내용을 문제로 삼는 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약 30%는 ‘외국(外国)’과의 지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 예를 들면 ‘에미시(蝦夷)’의 주해 부분에 ‘황국’이나 ‘황국인(皇国人)’ 등의 용례가 다수 등장한다. 영역 내지 인종적 경계를 그을 때 사용되는 ‘황국’의 예라 하겠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황국’의 ‘고어’ 및 어법과 관련된 용례 – 약 40%
② ‘황국’의 ‘고사’에 관련된 용례 – 약 30%
③ ‘황국’의 영역 및 인종에 관련된 용례 – 약 30%

물론 상기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전체적 조망을 위한 편의적인 수치일 따름이다. 노리나가에 의하면 고대 ‘황국’의 온갖 사물의 명칭은 한자로 기록되어 온 탓에 실물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래의 이름을 찾는 것이 곧 ‘황국’의 사물의 본모습을 밝혀내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주석이라는 행위는 ‘황국’의 ‘고어’ 찾기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고사기』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며 말의 뜻을 풀어내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일본서기』를 비롯한 고대의 문헌을 총동원하여 ‘고어’에 대응하는 ‘고사’의 실체를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작업이었다. 노리나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어(古言)’도 ‘고사(古事)’도 상고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후루코토(フルコト)’다. 즉 ①과 ②의 용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예로서 명확하게 구분짓기도 애매하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특히 ②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노리나가가 구체적으로 ‘황국’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들에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고사기전』이 ‘황국’의 ‘고사’로 다루고 있는 주해들을 보면 그 대상은 관직, 예배(礼拝), 복식, 식사, 출산, 혼례, 장례 등과 같이 상고시대부터 전해내려 오는 ‘나라와시(風儀)’, ‘이야고토(礼儀)’, ‘사다메(制)’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노리나가가 ‘고토(コト)’ 혹은 ‘와자(ワザ)’라고 부르는 ‘사(事)’의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고사기』의 성격상 대부분의 경우는 황실의 제도와 관습에

www.kci.go.kr

관계된 예인데, 노리나가는 황실을 기준으로 민간의 풍습 또한 형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사'는 황실을 비롯한 '황국' 전체의 고유한 풍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노리나가가 이와 같은 '고사'에 대해서 논할 때는 으레 '가라쿠니'와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황실의 황후 및 황태후 등과 같은 명칭은 '가라쿠니'에서 전래된 제도로 원래 '황국'에는 없었다는 것[8], 또 '황국'에서는 '가라쿠니'처럼 황태자를 따로 정해두지 않고 황위 후보로 복수의 태자가 있었다는 것[9] 등을 『고사기』의 기술을 근거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들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가라쿠니'에는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과 격식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황국'의 고대에는 만사에 얼마나 대략적인 구분만이 있었는지를 논하는 식이다.

'가라쿠니'에 대응하는 것들이 모두 '황국'의 고대에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가라쿠니'의 그것과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황국' 나름의 제도나 예법과 풍습 같은 것이 엄연히 존재했다고 말한다. 다음의 예는 관직에 대해서이다.

> 【……관직에 관한 것은 신대(神代)부터 있었는데,……팔십반서(八十伴緒)라는 것이 즉 한적에 백관(百官)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 가라쿠니에서 때때로 격에도 맞지 않는 이를 간택하여 관직에 임용하는 것과는 달리, 황조의 상대에는 각각의 직책을 대대로 세습하여 천황을 모셨기 때문에 그 가문의 직책을 성씨로 하는 예가 많았다. 이리하여 관직은 신대부터 쭉 있었음에도

8) "고대에 오호기사키(大后)라고 함은 당대의 제일부인을 뜻한다. 그런데 갖가지 제도를 가라쿠니의 예를 본떠 만든 시대가 되자, 정식문서에는 당대의 부인을 황후, 선대의 부인을 황태후라 쓰게 되었다. 그렇다 해도 구어나 비공식적인 글 등에서는 나라 시대까지도 여전히 예전대로 당대의 부인을 오호기사키, 선대의 부인을 오호미오야(大御祖)라고 했다." 「古に大后と申せしは、当御代の第一なる御妻なり、然るを万の御制漢国のにならひ賜ふ御代となりては、正しき文書などには、当代のをば皇后、先代のを皇大后と書るゝこととなれり、されど口に言語、又うちとけたる文などには、奈良のころまでもなほ古の随に、当代のを大后、先御代のをば大御祖と申せるを、」(10권, pp.419-420), "무릇 서기에 상고 대대로 황후를 세운 일 등을 모년 모월 모일이라고 날짜를 기록한 것은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확실하게 황후의 호칭을 존립했다는 등의 일도 가라쿠니의 일로서 황국의 상대에는 있을 리 없다. 황후는 어느 때부터랄 것 없이 자연스럽게 황후가 되는 것이 아닌가." 「凡て書紀に、上古の御代々々に皇后を立たまふことなどを、如此某年某月某日と、月日を記されたること甚疑はし、……又きはやかに尊為皇后などといふことも、漢国の事にこそあれ、皇国の上代にはさる事あるべくもあらず、皇后は何時よりとなく、自皇后なるべきをや、」(10권, pp.435-436) 등.

9) "본래 상고에 대대로 히쓰기노미코(日嗣御子)라 함은, ……반드시 한 명으로 한하지 않고 때로 두 명, 세 명을 두는 적도 있었다. 황위는 반드시 그 히쓰기노미코 중에 계승했다" 「抑上御代々々に、日嗣御子と申せるは、……其は必しも、一柱には限らず、或は二柱三柱も、坐しことなり、かくて、御位は、必其日嗣御子の中なるぞ、継坐ける」(11권, pp.169-171), "상대에는 태자는 한 명으로 국한되지 않았던 일, ……" 「上代には、太子は一柱には局らざりしこと、……」(11권, p.451) 등.

불구하고 후대와 그 모습이 다른 탓에 후세 사람들은 관직임을 모르고 상대에는 관직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리라.……】10)

노리나가는 '가라쿠니'와는 다른 고대 '황국'의 관직의 양상을 이처럼 설명한다. 논리 전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천하의 주요 대정관(大政官)의 명칭이 없었다"(11권, p.324)에서와 같이 언제나 해당사항의 명칭의 유무였다.

고대국가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도 대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고사기』의 세이무(成務) 천황조에 "각국의 경계(国々之堺)"를 정하고 이어 "대현소현(大県小県)의 현주(県主)"를 정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특히 후자는 "가라쿠니의 봉건제·군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다. 주해에는 고대의 상세한 국경 제도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후세와 같은 엄격한 구분만 없었을 뿐이지 대략적인 각국의 경계 같은 건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한다(11권, p.327, p.331).

'황국'과 '가라쿠니'의 풍습의 차이를 설명하는 논법 또한 마찬가지다. 장례를 예로 들면 본래 '황국'에는 '가라쿠니'에서 말하는 삼년상(三年喪)이라든지 무덤 밖에 묘(廟)를 만드는 관습 등은 없었다고 한다(10권, p.453, p.458). 단지 천황의 빈궁(殯宮)을 따라 민간에서도 모야(喪屋)를 만드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다(10권, p.69). 흥미롭게도 "없는 것도 있는 것도 풍속일진대 어느 쪽을 좋다고 정할 것인가"(9권, p.268)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노리나가가 과다한 주해를 덧붙이는 항목들은 당시의 유학자들이 '황국'에는 없다고 말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론이 많다.

다음은 『고사기』의 게이코(景行) 천황조에 오호우스노미코토(大碓命) 황자가 식사에 불참했다는 구절('不参出来')에 대한 『고사기전』의 주해 부분이다.

상대에 천황이 조찬 석찬을 드시는 예법은 매우 엄중해서 응당 황자들도 참석하여 함께 모셨던 것일까. 이로써 거기에 더욱 다양한 각종 의식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그런데 황국의 고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거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는 마치 아무런 예법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고대의 모습을 제대로 고찰하지 않은 잘못된 설이다. 가라쿠니는 무엇이든지 따지고 논하는 풍속이 있기에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은 예법은 오직 그 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리라. 비록 번잡하게 논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황국의 상대에

10) 「【……官職(ツカサ)の事、神代より此ありて、……八十伴緒と云しは、即漢籍に百官と云が如し、然れども、かの戎国の、時々に、あらぬ人を択び挙て、官に任すとは、大く異にして、皇朝の上代には、各其職を世々に伝へて、仕奉りし故に、其家の職を、即姓氏に負るぞ多かりける、かゝれば、官職は神代よりしてありつるを、後世とそのさまの異なるを以て、後人官職なることを知らず、上代には、官職なかりしが如く思ふめり、……】」(11권, p.324)

도 어떤 일에나 있을만한 예법은 다 있었음을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추론해 낼 수 있다.……】 11)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위와 같은 일례가 천황가의 다양한 의식과 예법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노리나가는 말한다. 게다가 이로 인해 그 밖의 귀인(貴人)들과 범인(凡人)들도 각 신분에 맞는 적당한 예법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유추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황국'의 상대의 예법들이 전부 소실되어 버린 현실을 탄식한다.

이렇듯 『고사기전』은 『고사기』를 실마리로 하여 지금은 잃어버린 상고의 단편들을 찾아내고자 했다. '가라쿠니'에 대응할 만한, 혹은 '가라쿠니'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있었을 '황국'의 '고사' 찾기였다. 그러나 노리나가의 작업은 소실된 '고사'의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예를 들면 안코(安康) 천황조에 있는 '사배(四拝)'에 대한 주해에는 "민간의 배례는 정해진 제도도 없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대 그대로 양손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는 배례 방식이 전해내려 왔다.……지금 민속의 배례야말로 상고의 배례에 있는 그것"12)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후 점차 사배(四拝)를 관두고 대개가 재배(再拝)로 바뀌었으나, 유일하게 신에게 배례를 올릴 때는 후대에도 여전히 사배를 했다"13)고 하면서, 신사에 남아있는 사례들을 증거로서 하나하나 열거한다. 또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라는 신의 장례식 모습 중에 새들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시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기사리모치(岐佐理持)'라는 의미 불명의 구가 나온다. 노리나가도 더 이상 그 뜻을 풀지 못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서도 "각 지방의 장례 풍습을 조사하면 지금도 비슷한 예가 반드시 있고 그 이름도 남아있을 것임에 틀림없다"14)라고 맺고 있다.

요컨대 이미 원형을 규명해낼 수 없는 것도 다수 있지만, 적어도 그 일부는 남아서 현재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개중에는 지금까지 유효한 것도 있다는 사

11) 「上代天皇の朝夕大御食所聞看す(キコシメ)御礼儀、いと厳重にして、然るべき皇子等なども、参出候ひて、供奉賜ひけ(ミキヤゴト)む、されば其になほ種々の儀式のありけ(ミワザ)むこと知られたり、【……然るに皇国の古は、凡てかゝる事などをも、論ひ言こと無かりし故に、上代(ナラハシ)には何の礼儀も無かりし如く思ふは、古のさまをよく考へ見ざるひがことなり、漢国は、何事をもこちたく論ひ云風俗なる故に、其を見て、かゝる礼儀はたゞ彼国にのみ有しがごと思ふめり、言痛く言ることこそなけれ、皇国の上代にも、何事の礼儀も、あるべきかぎり有しこと、此一事を以ておしはかり知べし、……】」(11권, p.190)

12) 「民間の拝は制もなくて、今に至るまで上代のままに両手拠(ヨラ)地跪伏す拝の伝はり来ぬる……今の民俗の拝ぞ上古の拝にはありける」(12권, p.227)

13) 「其後遂に、四拝は止ておしなべて再拝になれるをたゞ神を拝むにのみぞ、後までもなほ四拝は用ひられける」(12권, p.227)

14) 「諸国の葬の風を尋ねば、今も似たること必ありて、名ものこれることもありぬべし」(10권, p.71)

www.kci.go.kr

실의 확인이 이들 주해의 요점이다.

덧붙이자면『고사기전』제1권「서기에 대해」에서『일본서기』의 한문의 윤색이 고대의 진실을 가리는 원인이라고 비판할 때 노리나가가 예로 드는 것도, 이상과 같이 '황국'의 고유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사'들이다.

> 진무 천황조에 "弟猾大設牛酒, 以労饗皇師焉"라고, 또 스진 천황조에 "蓋命神亀, 以極致災之所由也"라고 되어있다. 이들 문장은 한문의 윤색에 의해 실질을 잃어 매우 해롭다. 황국에는 상대라고 해도 소를 먹는 일이 없었고, 또 복점을 칠 때 귀면을 이용하는 일도 없었으니.[15]

여기서 노리나가는『일본서기』의 문장에 나오는 풍속의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 기술이 허식임을 밝히고 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고사기전』본문 안에 더욱 상세한 주해를 달고 있다.[16]

또한「나오비노미타마」에는 형제간의 혼인을 인정하는 '황국'의 관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는 부분이 있다.

> 황국을 일부러 비하하기 위해서일까, 자칫 옛 형제지간의 혼인을 금수들이나 하는 짓으로 비방하는데, 이쪽의 식자들도 이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기고 어국의 도리에 어긋난 관습이라 생각하여 이러쿵저러쿵 둘러대면서 여태껏 확실하게 설파한 것 하나 없다. ……무릇 황국의 상고에는 오로지 동모(同母)형제만을 꺼렸을 뿐, 이모(異母)형제들의 결합은 천황을 비롯해 흔한 일로 헤이안 시대 이래로도 금하는 일이 없었다. 단 귀천의 구별은 분명히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는 일[=황통을 어지럽히는 일]은 자연히 생기지 않았다. 이야말로 신들이 정해 주신 진정 올바른 이치다.[17]

---

15) 「神武御巻に、弟猾大設牛酒、以労饗皇師焉、崇神御巻に、蓋命神亀、以極致災之所由也、これらの文、かざりによりて実を失ひ、いたく害となれり、皇国には上代といへども、牛を食べることなく、又卜に亀を用ひたることも、古はなき事なるをや、」(9권, p.12)

16) '우주(牛酒)'에 대해서는 향연에서 소고기 등을 쓰는 것은 '가라쿠니'의 경우라 하면서 '황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없는 일이라고 했다(10권, p.374). 복점에 대해서는 아마테라스가 아마노이와야(天石屋)에 숨는 단에서 "숫사슴의 어깨뼈를 뽑아……점을 치고"라는 구절을 근거로, 상대의 복점은 귀면이 아니라 사슴뼈를 사용했다고 추정하는 부분이 있다(9권, pp.359-360).

17) 「皇国をしひて賤しめむとして、ともすれば、古兄弟まぐはひせしことをいひ出て、鳥獣のふるまひぞとそしるを、此方の物知人たちも、是をばこゝろよからず、御国のあかぬことに思ひて、かにかくにいひまぎらはしつゝ、いまださだかに断り説くこともなきは、……抑皇国の古は、たゞ同母兄弟をのみ嫌ひて、異母の兄弟など御合坐しことは、天皇を始め奉て、おほかたよのつねにして、今京になりてのこなたまでも、すべて忌ことなかりき、但し貴き賤きへだては、うるはしく有て、おのづからみだりならざりけり、これぞこの神祖の定め賜へる、正しき真の道なりける、」(9권, p.60)

www.kci.go.kr

이것은 형제관계에 관한 명칭의 분석과 신들의 결합부터 천황가의 혼인에 관한 사례 검증에 의거해서 논하고 있는 내용이다. 노리나가는 고어 연구를 통해 동모(同母)형제에 대해서는 '하라카라(ハラカラ)'라고 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던 반면, 이모(異母)형제에 대해서는 '하라카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혼인도 가능했다고 설명한다. 동모형제 간의 혼인에 대해서는 '황국'의 고대에도 엄격히 금했음을 인교(允恭) 천황의 가루노미코(軽太子) 사건의 예를 통해 증명한다. 『고사기전』 본문 중에도 비슷한 내용의 주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며(12권, p.198 등), 『구즈바나』(8권, pp.168-170)를 비롯한 다른 저서에도 재차 등장하는 언설이다.

이상으로 『고사기전』에 쓰인 '황국'의 용례를 특히 '고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일견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항들인 것 같지만, 『고사기전』 속의 '황국'은 이렇게 조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고사기』 연구에 몰두해가는 노리나가 역시 '황국'의 고대에 대한 전체상이 이미 자명한 모습으로 눈앞에 있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황국'의 '고사'들이 노리나가에게는 그저 머나먼 상고의 일로서 존재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사기』에 나오는 신들의 시대는 노리나가의 현대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4. '황국'의 '고사'를 찾아서

상고의 신들의 시대가 '고사의 흔적(事の跡)'으로서 엄연히 현존한다는 사실은 노리나가가 보기에 '황국'의 '고사'가 틀림없는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온갖 이름만이 기록으로 전해질 뿐, 옛 형태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가라쿠니'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노리나가가 이러한 주장을 본격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구즈바나』와 같은 저서에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언설에서 엿볼 수 있다.

>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天照大御神)가 스메미마노미코토(皇孫命)에게 하사하신 신령이 깃든 거울은 지금도 이스즈 궁(五十鈴宮)에 모셔져 있고, 구사나기(草薙)의 신검은 아쓰타 궁(熱田宮)에 모셔져 있는 등, 신대의 유적은 지금도 각 지방에 남아있다. 또 진무 천황 이래 역대 천황들의 산릉(山陵)도 기나이(畿内) 지방 곳곳에 현존하며, 조정에는 신대의 유사(遺事)가 이것저것 남아있

www.kci.go.kr

다. 또 나카토미(中臣), 인베(忌部), 오호토모(大伴) 등의 성씨는 신대의 관직을 세습하여 후대에도 연면히 이어지는 등, 이 모두가 고사(古事)의 진실함을 명백히 밝히는 증거들이다. 이와 같이 각 지방에 많은 유적과 유사, 그리고 각 가문의 계보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날조해냈을 리 없다. 가라쿠니의 명가(名家)의 자손이며 국군(国郡)의 제도며, 그 무엇 하나 흔적도 없이 변해버린 질 나쁜 나라의 예와는 세월을 같이한다 해도 견줄 수 없다.[18]

인용 중에 보이는 거울과 신검의 실재에 대해서는 『고사기전』에서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19] 그리고 역대 천황의 능에 대해서라면, 『고사기전』은 각 천황조의 말미에 반드시 해당 천황의 능의 소재지 및 현존상태를 조사해서 주를 달았다. 이러한 검증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유적과 유사와 신하의 자손들이 있는 한, 그 고사가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0]고 노리나가는 확언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편 『구즈바나』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노리나가가 유학자 이치카와 가쿠메이의 『마가노히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한 저서다.[21] 위의 인용문은 가쿠메이가 "상대의 고사는 후대 천황들의 명으로 이루어진 비사(秘事)"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노리나가의 반론에 해당한다. 노리나가는 가쿠메이가 말하는 '비사'의 의미를 "오진(応神) 천황 이전, 즉 문자가 없었던 시대의 고사는 모두 그 후의 천황의 의중에 따라 좋은 쪽으로 만든 것, 즉 실제의 일은 아니라는 뜻"[22]이라고 파악한 다음, 이에 대해 "가라쿠니의 취향과는 너무 다르게, 오히려 성인(聖人)의 도리로 보면 거짓이라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만이 신대에 많은 건 어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가라쿠니의 서적에 의거하지

18) 「天照大御神の、皇孫命に授け給へる御霊の御鏡は、今も現に五十鈴宮にましまし、草薙の御剣は、熱田宮にましますたぐひ、神代の遺跡今なほ国々に存し、又神武天皇よりこなた御代御代の山陵なども、畿内の国々に現存し、朝廷には神代の遺事もこれかれのこり、又中臣忌部大伴などの氏々は、神代の職を相伝へて、後々までも連綿せるなど、皆その古事の実なりける明証也、かくの如く諸国におほかる遺跡遺事、又諸家の系牒などまでも、俄に造り設けらるゝ物にはあらぬをや、かの漢国などの、名家の子孫も、国郡の制も何も、あとかたなく代々にかはりゆく、薄悪の国の例とは、年を同じくしてもいひがたき物なり、」(8권, pp.126-127)

19) '이스즈 궁(伊須受能宮)'의 주해에 있는 '거울(御鏡)'에 대한 상세한 설명(10권, p.164), 그리고 '신검(御剣)'에 대한 주해(11권, pp.263-265)를 참조.

20) 「遺跡遺事又子孫などのありしうへは、其古事の有し事疑ひなきを」(8권, p.127)

21) 나고야의 유학자 이치카와 가쿠메이는 노리나가의 제자 다나카 미치마로(田中道麿)와 친분이 있어 미치마로에게 빌린 노리나가의 저서들을 보고 감복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道)에 대한 논'에 대해서만은 찬동할 수 없어서 『마가노히레』를 썼고, 이것을 노리나가에게 보였으면 한다는 편지를 붙여 미치마로에게 보낸다. 노리나가는 곧바로 '가라고코로'에 취한 것을 각성시킨다는 뜻으로 『구즈바나』라는 서명('구즈바나'는 칡꽃, 당시 취기에 쓰이는 약재였다고 함)의 반론서를 쓴다. 앞의 책 『本居宣長全集』 8권의 해제(大久保正 집필) 참조.

22) 「此段は、応神天皇の前、文字なかりし世々の古事は、皆その後の天皇の御心もて、よきさまに造り成し給へる物にて、実の事にはあらすといふ意」(8권, p.125)

www.kci.go.kr

않고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23]라고 논박했다. 이어서 『고사기』에 전하는 '고사'가 모두 '진실'임을 증명하는 실례들이 위의 인용 부분이었던 것이다.

『구즈바나』의 서두는 말보다 글자의 효용을 강조하는 가쿠메이의 논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된다.[24] 『마가노히레』에서 문자가 있는 나라는 문자로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상대의 일도 지금의 일인 양 훤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자의 덕(文字の徳)'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리나가는 그에 뒤지지 않는 '구전의 덕(言伝の徳)'으로 응수한다.

> 문자가 없는 시대는 문자가 없는 시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구전이라고 해도 문자가 있는 시대의 구전과는 달라서 불안정함이 전혀 없다.……특히 황국은 "언령(言霊)이 살펴주는 나라, 언령이 축복받은 나라"라는 말이 고어에도 있으니 그 언어의 절묘함이란 만국에 뛰어나지 아니한가.……황국에는 천지가 나뉘는 태초부터 국토와 일월과 만물의 시초까지 그 고사가 상세히 전해져 왔다. 그것은 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가 탄생하신 어국으로서 만국에 뛰어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정직했기 때문이며, 또한 중고까지 문자라고 하는 것의 간섭 없이 영묘한 언령이 전하는 덕이라고 할 만하다. 외국은 오호미카미의 어국이 아니므로 만사가 본디 황국에 미치지 못함이 지당하여 상고의 고사도 불분명한 것이다.[25]

문자의 유무가 어느새 '가라쿠니'와 '황국'간의 우열을 가리는 논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리나가에 의하면 비록 문자를 갖지 못했어도 '황국'에는 구전이 있었고 그렇게 전해진 '고사'의 정확함으로 인해, 역설적이지만 문자가 없었던 '황국'의 상고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마가노히레』에서 가쿠메이는 세상만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름만 남은 것이 많다면서 '고사'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구즈바나』에서 노리나가는 다음과 같이 강한 어조로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인다.

---

23) 「漢様とは大に異にして、返りてかの聖人の道に虚誕とて取あげぬ類の事のみ、神代には多きはいかに、これかの国の書によらず、造り事にあらざる証也」(8권, p.126)

24) 『구즈바나』는 말미에 "한참동안 문자의 유무의 우열을 관해 논하고자 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자가 없었던 까닭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해졌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이미 논한 바이다" 「姑く文字の有無の勝劣にかけていはんには、中々に文字なかりし故にこそ、詳に正しくては伝はり来つるならめ、此事は上にも既に委く弁じたるが如し」(8권, p.176)라고 맺으면서 문자론으로 수미일관한다.

25) 「文字なき世は、文字無き世の心なる故に、言伝へとても、文字ある世の言伝へとは大に異にして、うきたることさらになし、……殊に皇国は、言霊の助くる国、言霊の幸はふ国と古語にもいひて、実に言語の妙なること、万国にすぐれたるをや、……皇国には、天地の判れし始よりして、国土日月万物の始などまで、其事の詳に伝はりきぬるは、天照大御神の御生坐る御国として、万国に勝れ、人の心も直かりしゆゑ、且は中古迄、中々に文字といふ物のさかしらなくして、妙なる言霊の伝へなりし徳ともいひつべし、外国は大御神の御国にあらずして、万の事もとより皇国に及ばざるべきことわりなれば、上古の伝へ事もさだかならざる也、」(8권, p.125)

> 가라쿠니의 도(道)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직 명칭만이 남아 문장이나 말로는 누구나 성인이라 하면서 떠받드나, 실제로는 그것을 쓰는 왕도 없고 또한 그 설처럼 세상이 되지도 않아 모두 허위가 되어가고 있으며, 나라의 모든 일은 바뀌고 또 바뀌어 옛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황국은 그렇지 않다. 그 신칙(神勅)처럼 천양무구하게 천신의 계보를 잇는 황통(天津日嗣)이 계승되어 왔다. 그 사이 마가쓰비 신(禍つ日神)의 난폭함이 때때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천황은 천황으로 엄존하신다. 이 근본을 비롯해서 만사가 신기할 정도로 옛 법이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는 아마 천지간에 오로지 이 황국뿐일 것으로 생각된다.[26]

'가라쿠니'에 대해 '황국'의 절대적 우의를 주장하는 노리나가에게 최대의 근거가 되었던 것은 바로 황통(皇統)이 존속한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상기 인용문에서 "그 신칙(神勅)"이란 아마테라스가 직계자손들에게 이 지상의 지배를 명하는, 이른바 천양무구(天壌無窮)의 신칙을 말한다. 노리나가는 황통의 연속을 이 신칙의 영험이자 증거라고 종종 말하곤 한다.[27]

한편 "마가쓰비 신(禍つ日神)의 난폭함"이 때때로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마가쓰비 신은 이자나기 신이 이자나미 신을 쫓아 요미노쿠니(黄泉国)에 갔다 와서 그 부정(穢れ)을 목욕재계(禊)로 씻어낼 때에 생겨난 11신 중 하나인데, 『고사기』에 이름만이 등장할 뿐인 이 신에 대해서 『고사기전』은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일 사악한 일 등은 모두 본래 이 마가쓰비 신의 영령에 의해 일어나는 것"[28]이라고 확대해석했다. 이것이 노리나가의 신대(神代) 해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축이 된다.[29] 즉 노리나가는 요미노쿠니의 부정과 재계를 기점으로 이 세계를 규정하는 원리를 도출해낸다. 바로 "세상만사는 좋은 일에서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서로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이치"[30]다.

---

26) 「漢国の道こそ、たゞ名のみ残りて、文章や口さきにのみは、たれも聖人も聖人といひて、たふとみげなれ共、実の所行には、これも用る王もなく、又その説の如くにも世はあらずして、皆いたづらごとになりつゝ、国内の万の事も、たゞかはりにかはりて、古の形は一つも遺らずなりにたるを、皇国は大に然らずして、かの神勅の如く、天壌と無窮に天津日嗣の伝はり給ひて、そのあひだに、禍つ日神のあらびはをりをりあれ共、猶天皇は天皇にて、儼然とまします、此大本を始めとして、万の事さはいへどあやしきまで古の規の絶はてずして、今にのこれるは、恐らくは天地の間に、たゞ此皇御国のみならんとぞ思ふ、」(8권, p.157)

27) 노리나가의 다른 저서 『다마쿠시게(玉くしげ)』(1786)에도 "신칙의 영험이 있어서 현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대의 옛 전설이 허위가 아님을 알고, 또한 이국이 미치지 못함을 알 것이다" 「神勅のしるし有て、現に違はせ給はざるを以て、神代の古伝説の、虚偽ならざることをも知べく、異国の及ぶところにあらざることをもしるべく」(8권, pp.311-312)라는 부분 등이 있다.

28) 「世間にあらゆる凶悪事邪曲事などは、みな元は此禍津日神の御霊より起る」(9권, p.272)

29)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金沢英之(2005)를 참조.

www.kci.go.kr

노리나가가 발견한 이 '묘리(妙理)' 역시 신대로부터 현대까지 일관되게 계속 작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리나가의 역사인식의 근간에 있는 것도 이 '묘리'다.

> 【……이 오호미카미[=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조차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의 난동에 견디지 못하고 얼마동안 숨은 적도 있었던 것은 세상에 대란이나 대역과 같은 사건도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이치로서, 그 근본은 모두 요미노쿠니의 흉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어광(大御光)은 머지않아 길하고 선한 것으로 회복되어 다시 밝아져 무궁하게 세상을 비추시니, 황손이 천하를 다스리고 황통은 천만년 끝까지 변함없다.】(『고사기전』)[31]

> 황조도 때로 성쇠가 있었던 것은 본래 그러한 법으로, 아마테라스가 암굴에 숨은 이치가 그러하다.……아시카가 장군이 정치를 이어받았던 대대야말로 마가쓰비 신의 난폭함이 극에 달했던 시대이며,……다음으로 도요토미 관백이 천하를 평정하여 이윽고 황조의 쇠락을 일으켰다. 다음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고대에도 유례없는 태평성대가 되었다.……이는 마가쓰비 신이 때로 난폭하게 굴더라도 끝내 선한 신에게 이길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구즈바나』)[32]

전자의 『고사기전』의 주해에 조응하는 『구즈바나』의 해당부분을 후자에 함께 인용했다. 특히나 후자는 에도 시대 후기에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살았던 노리나가의 현실긍정의 언설의 예로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문장이기도 하다. 노리나가는 성쇠를 되풀이하면서도 황통이 온존되어 온 '황조의 지금의 모습'이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교대로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좋은 일이 이긴다고 하는 '묘리'의 증거라 했다. 하지만 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왔다고 주장하는 이 '묘리'란 것도 결국은 노리나가가 가라쿠니의 악습이라 맹렬히 비판했었던 '이

---

30) 「世間のあるかたち何事も、吉善(ヨゴト)より凶悪を生し、凶悪より吉善を生しつゝ、互にうつりもてゆく理(マガコト)」(9권, p.295)

31) 「【……此大御神すら、須佐之男命の荒びに得堪(ケガレ)たまはで、しばらくは障られたまふこともありしは、世中に大乱大逆事も、必なくてはえあらぬ理にて、其本は皆黄泉の凶悪より出るなり、然れども大御光はつひに障られはて賜はず、ほどなく吉善(ヨゴト)に立復りて、又明らけく、無窮に世を御照し坐まして、皇御孫命、此天下を所知看て、皇統は、千万世の末までに動きたまはぬ、】」(9권, p.295)

32) 「皇朝も時々に盛衰のましますは、もとよりさるべき事にて、かの御石屋戸隠りの理也、……足利将軍の政申給ひし御代御代の程ぞ、禍津日神の荒びの極にて、……次に豊臣関白天下をはらひ清め給ひて、いよいよ皇朝の御衰へを起し奉り給ひ、次に東照神御祖命の、御政申給ふ御世に至りては、……天の下安平なること、古にもたぐひまれ也、それよりして、中比すたれたりし事共も、御世御世にやうやうに御再興なども有て、すべて皇朝の今の御ありさま、かの御衰への極なりし時代にくらぶれば、いかばかりかは栄え給ふ、これ禍津日神しばしはあらぶといへ共、つひに善神に勝ことあたはざる験、目のまへに明かなるもの也、」(8권, p.155)

(理)’가 아닌가. 사실 이러한 비판은 당대에도 끊이지 않았다. 자칫 자기모순에 빠지기 쉬운 논법에 대해 노리나가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다.

> 이 점은 이 자[=이치카와 가쿠메이]뿐만 아니라 우리 고학(古学)의 무리들도 비난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이치(理)란 것을 너무 싫어해서 분명히 보이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치를 꺼린다 해도 현저히 드러난 이치를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다. 본래 이 선과 악이 서로 바뀌는 이치는 신대의 요미노쿠니 단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황국과 가라쿠니의 변화의 흔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 기묘하게도 하나같이 이 이치에 들어맞는다.[33]

노리나가는 이것도 ‘이(理)’이기는 하나 결코 가라쿠니의 ‘공리(空理)’는 아니라고 말한다. 어디까지나 ‘황국’과 ‘가라쿠니’의 역사적 변화에 합치하는 명백한 사실로서의 ‘묘리’이다. 이처럼 신대(神代)가 현대(現代)에 내재한다는 사실의 발견은 노리나가가 『고사기』의 신대 연구를 통해 얻어낸 최대의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황국(皇国)’이란 말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를 나타내고, 그 표상은 만국의 우위에 서는 자국 아이덴티티의 주장으로 직결된다. 한편 노리나가의 스승이었던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1697-1769)는 ‘황조(皇朝)’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노리나가의 경우 ‘황조’는 그다지 쓰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마부치는 ‘황조’와 ‘황국’을 거의 동의어로 쓰는 반면, 노리나가는 ‘황조’를 조정의 일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고사기전』에는 ‘황조’를 ‘미쿠니’라고 읽으면서 ‘황국’과 같은 의미로 쓰는 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개는 ‘(스메라)미카도’라고 루비를 달며 “황조의 대정(大政)”처럼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한 일이라든지 외국사절의 파견 등의 장면에 쓰인다. 수적으로도 ‘황국’에 비하면 ‘황조’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여기서 『고사기전』 중의 ‘황국’ 관련 용례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33) 「これは此難者のみにもあらず、吾古学の輩も難ずる事也、然れ共それは、たゞ理といふ事を嫌ふに過て、明らかに見えたる理を得知ざる也、いかに理をいふ事を厭へばとて、顕はに見えたる理をも、しひて覆ひ隠すべきにあらず、そもそも此善悪たがひに相根ざす理は、神代の黄泉の段より始めて、今の代にいたる迄、和漢の変化の事跡に就て、委曲に考へ見よ、妙にことごとく此理にあたれり」(8권, p.162)

	[제1권／그 중「直毘霊」]	[제2권 이하]	[합계]
‘皇(大御)国’	35례／12례	145례	180례
‘(大)御国’	24례／13례	54례	78례
‘皇朝’	1례／없음	41례	42례
‘我国’ ‘吾国’ ‘吾朝’	없음	7례	7례

‘스메라오호미쿠니(皇大御国)’와 ‘스메라미쿠니(皇御国)’는 모두 ‘황국(皇国)’의 용례수에 넣었다. 『고사기전』 전체에서 ‘스메라오호미쿠니’란 표현은 3례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1권 「나오비노미타마」의 첫머리를 장식한 예 이외에는 ‘스메라오호미쿠니의 학문’(9권, p.7), ‘스메라오호미쿠니의 예법’(12권, p.227)이라는 예가 있다. ‘스메라미쿠니’는 2례, 하나는 ‘스메라미쿠니의 학문’(10권, p.11), 또 하나는 ‘미즈호(水穂)’의 주해에 쓰인 예다.[34] ‘황’자에 ‘대’자와 ‘어’자가 덧붙어 존칭이 나열된 이러한 강조표현은 무엇보다 ‘황국’의 학문에 관계된 표현에 쓰인다는 점이 주의를 끈다. 마찬가지로 ‘어국’에 ‘대’자를 붙인 ‘오호미쿠니(大御国)’의 예도 “오호미쿠니의 학문”(9권, p.15, p.32, p.52 등)이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쓰인다.

또한 여기에서는 「나오비노미타마」를 포함하는 제1권의 용례수와 제2권 이후의 수를 구분해보았다. ‘황국’은 180례 있으므로 『고사기전』 총44권으로 환산하면 권당 평균 4례 정도라는 계산인데, 실제로는 제1권에 35례(약20%)가 밀집해있다. ‘어국’의 경우는 78례 중 24례(약30%)가 제1권에 있다. 게다가 그 중의 절반 이상은 「나오비노미타마」에 있는 용례다. ‘황국’ 대 ‘가라쿠니’라는 뚜렷한 사상적 언설 속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제1권의 총론으로서의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과연 『고사기』라는 텍스트를 『고사기전』이 해석한 것과 같은 ‘황국’의 세계관으로 풀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설정이다. 『고사기』가 8세기 시점에서 천황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편찬된 역사서(혹은 이야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단적으로 『고사기』는 인간 일반에 대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노리나가는 오로지 천황의 통치로 이어지는 『고사기』의 신대의 이치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이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황국’이라는 용어의 선택과 『고사기』에서 ‘황국’의 ‘고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노리나가에게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세계의 총체를 묻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34) “스메라미쿠니는 만물도 만사도 이국보다 뛰어난 중에 벼는 특히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국에 뛰어나게 좋은데 이는 신대로부터의 깊은 뜻이 있다.”「皇御国は、万の物も事も、異国々より優れる中にも、稲は殊に、今に至るまで万国にすぐれて美きは、神代より深き所由あることぞ、」(10권, p.42)

본고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요컨대 노리나가가 『고사기』에서 발견해낸, 혹은 만들어낸 『고사기전』의 새로운 세계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세계관은 『고사기전』을 통해 『고사기』를 읽는 근대일본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고 재이용되었다. 이는 모두 본고의 영역을 넘는 금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고사기』의 텍스트 분석이 『고사기전』의 텍스트 분석과는 다른 문제이듯, 노리나가의 '황국' 언설과 근대일본의 '황국'이라는 문제는 한편으로 유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다른 성질의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参考文献】

·大野晋·大久保正 校訂(1968-93)『本居宣長全集』筑摩書房.
·金沢英之(2005)「『古事記伝』の〈神代〉」『宣長と『三大考』——近世日本の神話的世界像』笠間書院(初出, 2002). pp.185-209
·神野志隆光(2005)「『古事記伝』の『古事記』」長島弘明編『本居宣長の世界——和歌·注釈·思想』森話社.
·————(2007)『漢字テキストとしての古事記』東京大学出版会. pp.198-222
·野口武彦(1986)「本居宣長の古道論と治道論」『宣長選集』解説, 筑摩書房.
·裴寛紋(2011.2)「日本思想史学の方法と「宣長問題」」『日語日文学研究』第76輯2巻, 韓国日語日文学会.
·———(2011.8)「文字無き古代日本の実現——『古事記伝』の『古事記』序の読みを中心に」『日本文化学報』第50輯, 韓国日本文化学会.
·渡辺浩(1997)「「泰平」と「皇国」」『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初出, 1987). pp.148-153

www.kci.go.kr

要 旨

本稿は、本居宣長の『古事記伝』そのもののテキスト分析を通じて、『古事記』注釈の営みについて考えようとする研究の一端である。とくに注目するのは「皇国」という言葉で、まず『古事記伝』の執筆過程において「御国(ミクニ)」の語が「皇国(ミクニ)」に変わって用いられている事実を明らかにした。そして『古事記伝』中の「皇国」が具体的にいかなる注解の場面に現れているのかを検討した。それは「皇国（の古）言・語」の用法を説明する際に最も多く見られるが、他にも「皇国の(古の)物・事」、また「皇国(人)」など、さまざまな形で使われている。なかでも宣長が「皇国」にかかわらせて、いかなる「古事」に関心を示しているのかを調べたところ、それはあらゆる風習的なものを総括するものであり、また常に「漢国」との対比で語られている。宣長にとって『古事記』注釈を通して神代の「事の跡」を探っていく作業は、すなわち「皇国」の真実性を担保するものであり、そのことが「皇国」という自国アイデンティティの選択と主張にもつなが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本居宣長、注釈、古事記伝、古事記、皇国、漢国

투　　고：2012. 2. 29
1차 심사：2012. 3. 17
2차 심사：2012. 4. 7

www.kci.go.kr